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교회 설립 주일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새기야 사방에서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July 4,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찬 양 /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기도 / 최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양 / 찬송 429장 -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통일찬송 489장)
	봉 헌 / 유덕하 집사, 구은강 집사
말씀과 결단	찬 양 / 주님 말씀 하시면
	성경말씀
	출애굽기 39:1-31
삶과 세상으로	거룩의 옷을 입고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1:7-14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7월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삶을 삽시다.

-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오늘은 교회 설립 6 주년이자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충성하는 사역과 교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다음 주일(11 일) 설립 감사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립니다.
-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 사역정상화 지난 주부터 2 층에서 예배와 사역을 재개했습니다. CDC 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 CUMC 사역재계 오늘부터 주일예배를 1층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 여름방학 방학을 보람 되게 보내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 사역자 일정 김진숙 전도사는 7 월 18(주)부터 25(주)일까지 2 주간 Alaska 주의 Conference 를 참여합니다.
-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쓰시다.
-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니다.
- 치유, 회복, 나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7월의 사역 - 교회 설립 6주년/미국독립기념일(4), 만남과 나눔 주간(4-10),
설립감사예배(11), 믿음성장과 성숙 주간(11-17),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18-24), 선교주일(25), 선교 주간(25-31)

♥7월 섬김이♥ 오정은(14) 김태성(15) 홍현근(18) 구은강(28)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7/4	7/11	7/18	7/25
주일예배기도	최내권집사	최선운집사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7/4	7/11	7/18	7/25
주일헌금위원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구 민집사/최선운집사	
	7 월			
주일안내위원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 아모스 1:3-2:3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6 나라 --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과 모압 -- 를 향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받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실수가 반복되면 무능이며, 범죄가 반복되면 의도적인 것이다. 이는 엄중한 심판을 초래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신다. 고난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며 나누자.

거룩의 옷을 입고 / 출애굽기 39:1-31

대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준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로 짜여진 예복

화려하지만, 오직 한 벌

견대와 흉패: 책임감과 사랑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론에게 입혀졌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거룩의 옷을 입게 되었다.

거룩의 옷을 입고 / 출애굽기 39:1-31

대제사장의 예복을 살펴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명을 맡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세상에 하나 밖에 없고 아무나 입을 수 없었다.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으로 특별한 옷이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양쪽 옆이 트인 조끼 모양으로, 앞면은 무릎을 덮었다. 두 개의 견대(어깨 위 띠)는 앞면과 뒷면을 연결했고, 허리의 띠로 고정되었다. 이 어깨띠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긴 호마노가 좌우에 부착되었다. 예복은 세마포로 만들지만,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 실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이는 **예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예표** 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듯이, 구주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셨다.

대제사장의 예복의 가슴에는 흉패가 달렸다. 가로 세로 한 뼘 되는 주머니 모양이다. 앞면에 12개의 보석이 1줄에 3개씩 4줄로 고정되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짐과 동시에 가슴으로 품었다. 책임과 사랑을 보여준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품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섬겼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우리 역시 사랑하는 이를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슴으로 품고 섬겨야 한다**.

예복을 입기 위해, 세마포 고의를 입고, 그 위에 속옷을 입고, 예복 반침 긴 옷 겹옷을 입어야 한다. 특히 청색실로 만든 이 겹옷 긴 옷의 아랫단에는 수놓은 석류와 금방울을 교차로 매달았다.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는 금방울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낸다. 흔들리는 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의 직무 수행을 표현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다. 인격과 존재의 표현으로, 이 관의 정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패가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를 뜻한다.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신다**. 사실, 아론은 이스라엘과 타협했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다. 그는 이런 허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거룩한 옷의 주인과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우리도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예복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능공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론에게 입혀 주었다. 하나님은 아론보다 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도 성결의 옷을 입혀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성결의 옷을 입고 있는가? 성결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당신의 영성 면역력을 점검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시련을 사용하실 수 있다.

방송을 통한 설교나 말씀 배우기가 늘어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치고 있습니다. 책도 많고, 예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비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교회도 넘쳐나면서 동시에 불신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안 나가는 자칭 교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강제로 먹여주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어도 흡수하지 못하여 병이 늘 듯이, 내 영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어도 흡수하지 못하고 병이 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받듯이 내 영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처음에 심어주신 동심을 잃지 않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런 고백의 찬양이 살아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받고 싶은 것인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든 삶은 절망인지 영양소인지?
믿음의 증거인 기다림이 너무 지루해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편리주의와 개인주의의 유혹에 빠져 긴장감마저 떨어진 느슨해진 나의 상태는 아닌지?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서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는 있는지?

매년 건강검진은 하면서도 수 십년 신앙생활 중에 나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 본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려고만 하고 멈추려고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감마저 잃어버린 나 자신을 보면서, 체념하듯 마귀에게 끌려가는 나를 바라보곤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영양소를 잃었고 면역력이나 저항력을 잃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점점 거세지는데, 약한 믿음 조차 지키기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 답답함도 있습니다. 내 믿음생활이 순종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욕심껏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사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재미와 스릴을 즐기듯이 영적인 체험을 즐길 줄 알고 사모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무시되고 신비적인 것으로만 몰아세우는 시대의 흐름에 거슬러 때로는 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해 내고 다시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고 신앙인들이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영적인 영양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임을” (요한 3서 1:2). 즉, 영혼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풍성한
영양제들이 공급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윤기가 흐르고, 마귀의 유혹
을 이겨내며 천국에 이르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 이구영 목사, 『당신의 영성 면역력을 점검하라』



예배가 살아 감동과 감격이 있는 교회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씨앗을 뿌리는 교회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하는 교회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
형제처럼 연합하고 교제하는 교회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너는 내게서 온 영혼을 돌보아라.”

골로새서 3:23,24

“너는 내게서 온 영혼을 돌보아라.”
“너는 내게서 온 영혼을 돌보아라.”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